

# 조선 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구개음화와 지역 문화

신성철(순천대)

## 1. 서론

이 글은 국어사에 나타난 구개음화의 확산과 전파 과정을 조선 시대의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보려는 시론적인 목적을 지닌다.

조선 시대의 한글 편지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구어성일 것이다. 김일근(1986/1991:11)에서는 “直接 對面해서 談話하는 代身 쓴 글”이라 설명하였고, 김주필(2011:62)에서는 “특정의 발신자가 특정의 수신자에게 대화하듯이 쓴 글”이라 하였으며, 황문환(2015:198)에서는 “대화 상황을 전제한 탓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래호(2015:98)에서는 “필사 당시의 구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적고 있다. 바로 조선 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나는 ‘구어적 성격’을 가리킨다.

그런데 현대에서도 편지를 작성할 때, 수신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적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 시대에 작성된 한글 편지만의 특성이라 하기는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다. 단순히 현대에 우리의 주위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글 중에서 편지글이 지니는 특징과 다르지 않은 설명이 주어진 것일 뿐이다. 즉, 글의 유형에 따른 특성이 설명된 것일 뿐이지, 국어사 논의에서 언급되어야 할 조선 시대 한글 편지의 국어사적 가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우리는 국어학을 처음 접하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그리고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언어학 또는 국어학 연구의 1차적 연구 대상은 ‘음성 언어’와 ‘자연 언어’라는 설명을 듣는다.

국어사 연구에서는 ‘음성 언어’를 1차적 연구 대상으로 삼기 쉽지 않다. 15,6세기나 17,8세기에 작성된 ‘음성 언어’ 자료는 엄밀하게 없기 때문이다<sup>1)</sup>. 송민(1986:11)에서는 국어사 연구에서 ‘문자 언어’로 작성된 문헌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헌 자료를 통한 음운론 연구를 ‘문헌음운론’이라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의 구분은 비교적 용이하다. 당시의 사람들이 말한 ‘음성 언어’가 없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저절로 배워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인 ‘자연 언어’에 가까운 자료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기문(1972:105)에서는 15·16세기의 문헌 자료 거의가 중앙 관청에서 편찬되고, 다수의 편찬자가 관여된, 그리고 중앙어 중에서도 상류 계층의 언어가 반영되며, 대부분 언해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당시의 생생한 국어의 실상을 보기는 어려운 일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황문환(2015:193-194)에서는 조선 시대 한글 편지가 작성자가 생각나는 것을 거의 그대로 적기 때문에 ‘언해(諺解)’에서 자유로우며, 어순이나 어휘 선택 등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의 질서를 따른다고 보았다.

구어성과 문어성의 측면에서는 중앙 관청에서 간행된 판본 자료가 문어성을 지니며, 수신자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한글 편지 자료가 비교적 구어성에 가까운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1) 외국어로 전사된 우리말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 자료에 나타난 우리말 자료가 ‘음성 언어’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송민(198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음성 언어’에 가까운 뿐이지, 엄밀히 말하자면 현대 개념의 ‘음성 언어’라 하기 어렵다.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판본 자료는 인공 언어, 한글 편지는 자연 언어의 성격에 가깝다(신성철 2017, 2020).

조선 시대 구개음화 연구가 일찍이 문헌 자료, 즉 간본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구개음화 연구의 결과물이 간행본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조선 시대의 한글 편지는 대체로 1990년대 이후에 국어사 자료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간행본 중심의 연구 결과물을 보충하거나 빈칸을 채우는 부차적 자료로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구개음화를 먼저 살펴보고, 간행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와 접목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즉 국어학 연구의 1차적 대상이 ‘자연 언어’에 있음을 상기하고, ‘자연 언어’의 성격을 지닌 조선 시대 한글 편지를 1차적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간본 자료 중심의 구개음화가 남부 지방에서 시작되어 점차 중부 지방으로 전파된 것으로 수렴하는데<sup>2)</sup>, 조선 시대의 한글 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는 간본 자료와 다른 전파 과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과 구개음화

### 2.1 연구 대상

국어사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조선 시대의 한글 편지 대부분은 발수신자와 관련된 가문에 보관되었거나 매장자가 알려진 무덤에서 발굴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해당 가문의 족보 등의 기록물을 참조하면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작성 시기 등을 특정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는 황문환 외(2013)의 ‘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판독문’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판독문에 포함된 한글 편지들 대부분이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작성 시기 등이 비교적 밝혀진 자료이다. 그리고 황문환 외(2013)에 들어가지 않은 자료들도 포함되었는데, 간행 이후에 발견되었거나 간행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예를 들어, <신창맹씨묘 출토 언간>은 학계에 2012년도에 소개되었으며(배영환 2012), <청풍김씨묘 출토 언간/양호당 이덕열 언간>이나 <전주이씨 이형상가 언간> 등은 간행 이후에 소개되었다.

이 논의의 연구 대상인 조선 시대의 한글 편지는 다음과 같다.<sup>3)</sup>

#### - 한글 편지 목록

시기	편지 명칭	건수	출전 표시	지역
1490년대	신창맹씨묘 출토 언간	2건	<신창맹씨-	충청도
1550-1592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188건	<순천김씨-	경상도/서울
1590-1599	청풍김씨묘 출토 언간/양호당 이덕열 언간	14건	<청풍김씨-	서울
17C 전기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현풍 광씨 언간	147건	<진주하씨-/광씨-	경상도
1620년대-18C 초	전주이씨 이형상가 언간	20건	<한구28XX	서울/경기도
17C 전반-18C 전반	은진송씨가 송준길가 『선세연독』 언간	40건	<선세연독-	충청도
17세기 중반	진주유씨가묘 출토 언간	58건	<진주유씨-	경기도/서울
1649-1696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 언	18건	<창계-	전라도

2) 안병희(1978)에서는 동북 방언, 즉 함경도 방언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3) 조선 시대 한글 편지에 대한 현황은 황문환(2010, 2015), 이래호(201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간			
1652-1688	『속명신한첩』 연간	67건	<속명-	서울
1653-1696	『속휘신한첩』 연간	35건	<속휘-	서울
1658-1700	진성이씨 이동표가 연간	40건	<이동표가-	경상도
1660-1803	고령박씨가 『선세언적』 연간	21건	<선세언적-	경상도
1665-1683	해주오씨 오태주가 『어필』 소재 명안공주 관련 연간	12건	<명안어필-	서울
1671-1686	우암 송시열 연간	6건	<우암-	충청도
1682-1683	나주임씨가 『총암공수목내간』 연간	8건	<총암공-	전라도
1684-1709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소재 연간	124건	<선찰-	충청도
17C 후반-18C 중반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연간	96건	<송준길가-	충청도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모든 편지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주로 기존 연구에서 남부 지역에서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16세기와 중부 지역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17세기의 한글 편지로 제한한다.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까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18세기 문헌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구개음화의 발생 시기와 발생 지역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18세기의 한글 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 2.2.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j’ 앞에서 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그 종류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ㄷ-구개음화로 하위 분류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룰 구개음화는 ‘ㄷ, ㅌ, ㅍ(ㄷ)’이 ‘ㅣ’나 ‘j’ 앞에서 ‘ㅈ, ㅊ, ㅍ(ㅈ)’으로 바뀌는 현상에 한정된다.

또한 구개음화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설명된다. 문헌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서울말에서는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났으며, 남부 방언에서 매우 일찍 일어나 북상한 것으로 본다(이기문 1972ㄱ:196-197).

국어사 연구에서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몇 가지의 쟁점 사항으로 정리된다. 배영환(2020:128)에서는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가. 중세 국어 ‘ㅈ’의 음가
- 나. 자음 체계의 변화와 구개음화 현상
- 다. ㄷ-구개음화 규칙의 적용 영역의 확대
- 라. ㄷ, ㄱ, ㅎ 구개음화의 사적 발생 순서
- 마. 자음 체계의 변화와 구개음화를 비롯한 근대 국어 단계의 일련의 음운 변화
- 바. 구개음화 규칙의 진원지와 확산의 방향

우리가 중점으로 다룰 쟁점은 ‘바. 구개음화 규칙의 진원지와 확산의 방향’에 한정된다. 현재 간본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구개음화가 대체로 남부 방언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와(이기문 1972ㄱ), 남부 방언 외에도 동북 방언, 즉 함경도 지역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안병희 1978). 안병희(1978:199)에서는 16세기, 정확히는 1571년부터 1573년 사이에 함경도 함흥에서 중간된 『촌가구급방』에서 ‘씩장가리(<씩당가리, 끼절가리, 승마(升麻)’)나 ‘석죽화(<석죽화, 패랭이꽃, 石竹花(석죽화)’) 등의 구개음화 용례와 ‘디남석(<지남석, 지남석(指南石), 자석(磁石)’) 등의 과도교정 용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16세기 후반기에 ㄷ-구개음화가 함경도 방언에 존재하였음을 밝혔다.

### 3. 조선 시대 한글 편지에서의 구개음화

#### 3.1. <신창맹씨묘 출토 언간>

배영환(1992)에서는 <신창맹씨묘 출토 언간>를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편지로 소개된다. 이 자료에서는 구개음화나 과도 교정된 용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배영환 1992:226). 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량이 적어 그런 것은 않으며, 구개음화 환경과 관련된 용례는 다수 나타나지만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 (1) 가. 데역(除役), 던디(田地), 도히(<동--+이)  
 나. 겹털릭(<겹+털릭), 단털릭, 터(<티--+어)  
 다. 명디(<명緇), 던디(<田地), 디혀다가(<닿--+어다가)  
 라. 마디 못흐논, 가디 말라, 설 쇠오디 말오, 모즈라디 아니케
- (2) 가. 그지업시(<그지+업--+이), 녀롬지이(<녀롬+지이), 가래질(<가래+질)  
 나. 가고져(가--+고져), 나오고져, 장쉬(<將帥+ㅣ)

#### 3.2.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에서 확인되는 발신자는 순천김씨의 부모인 김훈과 신천강씨, 남편인 채무이, 그리고 순천김씨의 남동생들이다. 김훈, 채무이, 남동생 김여흠, 김여물 등은 서울어, 신천강씨는 경상도와 서울어가 혼재된 언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았으며, 편지의 작성 시기는 1550년대에서 임진왜란 이전으로 추정하였다(조항범 1998).

순천김씨의 아버지이자 신천강씨의 남편인 김훈이 보낸 편지에서는 구개음화 용례와 과도 교정 용례가 함께 발견되며, 채무이가 보낸 편지에서는 구개음화가 반영된 용례는 나타나지 않고 과도 교정된 용례가 확인된다.

- (3) 가. 내쳐더(<나--+이--+티--+어+디--+어, 순천김씨-83), 첨장(첨장/첨장, 添將, 순천김씨-68)  
 나. 도히 등 되어(<증, 승려(僧侶), 순천김씨-61), 방딕도 업서도(방직, 紡織, 순천김씨-83)
- (4) 신명(<신정, 腎精, 순천김씨-82), 특판(<축판, 祝板, 순천김씨-75), 특파(<축파, 縮罷, 순천김씨-25)

구개음화 관련 용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지는 순천김씨의 어머니 신천강씨이다. 신천강씨는 경상북도 선산 출신으로 성장 후에 서울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하여 경상도와 서울어가 혼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조항범 1998).

구개음화 환경인 용례는 총 741개이며, 이 중에서 6개에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약 0.8%의

비율로 구개음화가 적용되고, 과도 교정과 관련된 용례는 총 801개이며, 6개가 과도 교정되어 0.8%의 비율로 나타난다(윤진영·신성철 2021:150-151). 신천강씨의 생몰 연대를 고려해 보면, 경상도 언어에서는 최소한 임진왜란 이전에 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순천김씨의 아버지 김훈과 남편인 채무이의 편지에서도 구개음화 관련 용례가 나타나는데, 특히 김훈은 서울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서울어에서도 구개음화가 적용되기 시작되었던 가능성과 연결된다.

### 3.3. <청풍김씨묘 출토 언간/양호당 이덕열 언간>

<청풍김씨묘 출토 언간/양호당 이덕열 언간>은 모두 14건으로<sup>4)</sup> 양호당 이덕열(李德悅, 1534-1599)이 보낸 13건과 청풍김씨가 보낸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1590년-1599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16세기 후기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구개음화와 과도 교정에 관련된 용례가 여럿 보이지만, 구개음화나 과도 교정이 반영된 용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 3.4.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현풍 광씨 언간><sup>5)</sup>

이 편지에서 구개음화된 비율을 구하면 42.53%(276/649)로 나타나서,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행된 양상으로 보인다(신성철 2017:22).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의 발신자는 진주하씨의 어머니 벽진이씨와 진주하씨의 안사돈 주씨, 남편 광주와 아들과 딸들이다. 특이하게도 본인이 보낸 편지도 6건이나 된다.

진주하씨의 출가 시기가 1602년 이전이므로, 진주하씨의 어머니 벽산이씨는 경상도 언어를 사용하며 16세기 후기를 살아간 인물이다. 벽진이씨의 한글 편지는 1607년에 보낸 1건인데, 이 문헌에서는 ‘ㅌ→ㄷ’이 반영된 ‘편치(진주하씨-62), 안심치(진주하씨-62)’가 나타난다(신성철 2017:22).

진주하씨의 안사돈인 주씨가 작성한 편지는 한 건이다. 이 편지에는 구개음화의 음운 환경 용례가 5개 나타나는데, 이중에 1개가 구개음화를 겪는다. ‘ㄷ→ㅌ’이 반영된 ‘정호읍더니(<定호-, 진주하씨-154/광씨-119)>’이 나타난다. 아들과 딸들의 통혼 지역을 감안하면, 안사돈 주씨도 경상도 지역에 산 것으로 추정되며, 그리하여 경상도 언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구개음화가 임진왜란 이전에 적용되었는데, 그 이후 시기에 작성된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현풍 광씨 언간>에서는 더 확산된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진주하씨가 작성한 한글 편지는 6건에 불과하지만, 구개음화 용례는 12개이며, 이중 11개가 구개음화되어 91.67%의 비율을 보이고, 편지 건수가 제일 많은 광주의 한글 편지에서는 35.14%(149/424)의 비율로 나타난다(신성철 2017:24). 17세기 전반기에 경상도 지역에서 구개음화의 확산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 3.5. <전주이씨 이형상가 언간>

<전주이씨 이형상가 언간>은 총 21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20건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건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박부자 2017:98-99). 이 글에서 다룬 20건은 국립한

4) 청풍김씨묘에서 발견된 한글 편지 중에서 한 건의 앞뒤로 남편 이덕열의 편지와 아내 청풍김씨의 편지가 함께 적혀 있다. 이를 나누어 14건으로 처리한 것이다. 아내가 보낸 편지의 공백에 남편이 답장을 적어 보낸 것이다.

5)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현풍 광씨 언간>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성철(2017:22-25)을 정리한 것이다.

글박물관 소장의 것이지만, 모두 다루지는 못한다.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증조부인 이사민(李師閔, 1573-1642)이 1620년대에 작성한 13건과 아버지 이주하(李朱夏, 1621-2671)가 1650-1671년 사이에 보내 3건이 논의 대상이 되는데, 이형상의 편지(2건)는 1721년에 보낸 것이므로 논의 시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사민의 한글 편지 13건에서는 구개음화가 3.19%(5/157개)의 비율로 나타나지만, 과도 교정은 178개에서 그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윤지영(근간)). 이사민과 이주하 등의 거주지가 한양이므로(박부자 2017:124), 해당 한글 편지에 반영된 언어는 16세기 초기의 한양어, 즉 서울어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최소한 중부 방언이 반영된 자료인 것임을 분명하다.

(5) 저런 놈이(<더런, 한구2837), 명지(<명디, 明細, 한구 2837), 죠훈 무명(<<도훈, 한구 2843)), 흐논만정(<-만명, 한구 2841), 굴물만정(<-만명, 한구2843)

특이하게도, 이형상의 아버지이자 이사민의 아들인 이주향이 작성한 3건의 편지에서 구개음화나 과도 교정이 반영된 용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세대에 따라 확산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편지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자료의 경우에는 전체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개음화 관련 용례의 전체 개수가 24개에 불과하다.

### 3.6. <송준길가 언간>

<송준길가 언간>은 <은진송씨가 송준길가 『선세언독』 언간>과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을 합친 명칭이다. 송준길가 구성원들은 현재의 대전시 회덕구를 세거지로 삼고 있는데, 충청도의 방언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작성한 편지는 총 4건이다. 아내 진주정씨에 보낸 편지가 1633년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되었으며, 나머지는 1630~1670년대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송준길의 아내 진주정씨가 작성한 편지도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송준길의 한글 편지나 진주정씨의 한글 편지 어디에서도 구개음화나 과도 교정이 반영된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김주필 2011 ㄱ:65).

아직까지 구개음화나 과도 교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준길가 언간>의 『선세언독』에는 송준길의 부인인 진주정씨의 아버지인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1630년에 출가한 딸에게 보낸 편지 1건과 어머니인 이씨가 1633년에 보낸 편지 3건이 실려있는데, 이 편지에서도 구개음화나 과도 교정이 반영된 용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송준길가 언간>에서 구개음화가 발견되는 것은 송준길의 맏아들인 송광식의 부인이 백천조씨의 한글 편지에서다. 편지 건수는 24건으로 적지 않지만, 구개음화가 반영된 용례는 오로지 1개뿐이다. 전체 89개의 용례 중에서 1개가 적용되어 1.12%의 비율을 보인다. 그런데 구개음화가 반영된 용례인 ‘츄원흐더니’(<追願, 송준길가-6)는 1681년 배천조씨가 작성한 편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17세기 후기에 작성된 것이다.

송병하(1646~1697)의 작성한 6건의 한글 편지는 작성 시기가 주로 1660년 이후 1690년 이전인데, 이는 17세기 후기에 해당된다. 이 자료에서는 전체 50개의 구개음화 환경의 용례가 확인되며 이 중에서 10개에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20%의 비율을 차지한다. ‘ㄷ→ㅈ’의 변화는 ‘장모겨오셔도, 정흐고, 일정’이며, ‘ㅌ→ㅊ’의 변화는 ‘치거논, 침시, 곳쳐, 붓치나, 편치, 도치, 대단치, 괴필치’ 등이다(김주필 2011 ㄱ:71, 신성철 2017:26). <송준길가 언간>에서 나타나는 구개음화는 구개음화의 적용 시기가 16세기 후기부터로 보인다.

### 3.7. <진주유씨가묘 출토 언간>

유시정(柳時定, 1596-1658)이 아내 안동김씨에게 보낸 편지 총 59건(내용상으로는 54건)의 편지를 일컬으며, 1611년부터 1658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전가휘·이래호 2022:90-91). 대개는 평양 서윤(1647-)을 역임할 때와 노한에 시달린 말년에 쓰인 편지가 많아서(박재연 2008:231-232), 대체로 17세기 중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17세기 중기의 언어가 반영된 것이다.

이 편지 자료에서 구개음화 용례와 과도 교정의 용례가 몇몇 확인된다(윤지영(근간)).

(6) 가. 흥여아만정(<-만명, 진주유씨-02), 지병으로(<디병, 持病, 진주유씨-35)

나. 명디(<명지, 名紙, 진주유씨-19), 편지(<편디, 便紙, 진주유씨-40), 더녁(<저녁, 진주유씨-43, 진주유씨-44)

유시정과 관련된 거주지, 세거지 등의 성장 배경을 알기 어려우나, 아내 안동김씨의 무덤이 경기도 포천의 선산에 있고, 또 다른 선산이 경기도 용인 모현면 등에 있는 것을 보면, 유시정은 경기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한글 편지에는 최소 중부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sup>6)</sup>

### 3.8. <나주임씨가 언간>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 언간>과 <나주임씨가 『총암공수묵내간』 언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임일유(林一儒, 호는 총암공, 1611-1684)가 1682-1683 사이에 작성한 8건과, 그의 셋째 아들 임영(林泳, 호는 창계, 1649-1696)이 보낸 18편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들은 전라도 나주에 본가를 두고 세거하고 있어서 이 편지들에 전라도 언어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편지에서 구개음화된 용례는 나타나지 않고, 과도 교정된 용례만 확인된다.

강희숙(2010:289)에서는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에 나타난 과도 교정의 예를 들었는데, ‘털업서(<철, 창계23-24), 단던(<진던, 進殿, 창계 7-8), 무명히(<무정, 無情) 등의 8개를 해당 용례로 삼았다. 과도 교정은 구개음화를 인식한 표기자가 교정 의식을 과도하게 적용시킨 것이므로 이 시기에 전라도 지역에 구개음화가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9. <우암 송시열 언간>

배영환(2020)에서는 추정된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작성한 6편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구개음화 용례를 분석하였다. 구개음화 환경의 용례가 90개인데 이 중에서 2개만 구개음화가 실현되어, 2.22%의 비율을 보이며, 과도 교정 관련된 환경의 용례가 83개이지만 과도 교정된 용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배영환 2020:130).

<우암 송시열 언간>은 1671년에서 1686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17세기 후기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으며, 충북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배영환 2020).

(7) 알과져(<-과더, 우암-1), 정녕이(<명녕, 丁寧, 우암-1)

6) 이 편지는 경기도 포천 양문리(혹은 거사리) 선산에 있던 묘를 용인 모현면 선산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양승민 2006:16).

‘정녕이’는 배영환(2020: 주26)에서 ‘이러한 추정은 잠정적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논의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하더라도, ‘알과져’는 구개음화가 확실히 적용된 용례라 할 것이다. 우암 송시열은 구개음화가 적용된 시기에 살았다.

#### 4. 조선 시대 한글 편지의 구개음화와 지역

이 글에서 다룬 조선 시대 한글 편지는 896건에 불과하다. 수치로 많은 것일 수도 있지만, 편지 안에 쓰인 분량을 고려하면 896건은 매우 부족한 숫자이다. 게다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당 지역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한양) 등으로 구분하면 구멍이 뽕뽕 뚫린 곳이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어, 전라도의 경우에는 16세기에 해당하는 한글 편지는 하나도 없으며, 17세기 초구나 중기 또한 그러하다. 17세기 후기에 해당하는 <나주임씨가 언간>은 전라도 전체가 아니라, 전라남도 나주의 언어를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크게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으로, 즉 남부 방언과 중부 방언으로 나누면 빈칸이 채워진다. 예를 들어, 우리의 연구 대상에는 16세기의 전라도 언어를 반영한 한글 편지가 없지만, 경상도 언어를 반영한 16세기 중후기의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로 대체될 수 있다<sup>7)</sup>.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을 남부 방언으로 처리하면, 이미 16세기 중후기에 구개음화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된다. 그리고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현풍 곽씨 언간>에서는 16세기와 17세기 교체기의 구개음화도 확인되는데, 1607년에 작성한 ‘벽산이씨’의 1건 편지에서 구개음화 용례가 나타난다.

한편,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에서 순천김씨의 아버지 김흠의 한글 편지에서도 구개음화 용례가 확인된다. 김흠은 서울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어를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김흠의 한글 편지에 구개음화가 반영된 용례가 보인다는 것은 16세기 후기에 서울에서도, 아니 범위를 넓혀 중부 지방에서도 구개음화가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전주이씨 이형상가 언간>에서 이형상의 증조부인 이사민이 1620년대에 작성한 13건에서도 구개음화가 반영된 용례가 발견된다. 이사민의 거주지가 서울이었으므로 16세기 후기를 계승하여 17세기 초기의 서울에서도 구개음화가 실현된 것이다. 또한 주로 17세기 중기에 작성된 <진주유씨가묘 출토 언간>에서도 구개음화된 용례가 나타난다. 이는 구개음화가 최소 중부 방언에서 16세기 후기부터 꾸준히 적용된 것이다.

중부 지역의 초기적 실례인 『신증유합』(1576)의 ‘건질 증’ 등은 그 저자의 출생지 등을 이유로 방언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된다(송민 1986:64). 그러면 16세기 말기에 중앙 관청인 교정청에서 간행된 『소학언해』(1587, 도산서원본)에서 나타난 구개음화된 용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송민 1986:65)?

(8) 이미 스스로 문져 쥬티 문흐는 줄을[已自先不好了也](소언 5:87b)<sup>8)</sup>

7) 지역의 분류를 크게 보는 것은 간본 자료의 연구 결과와 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간본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구개음화 연구에서는 일찍이 구개음화가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여 중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견해가 있었다.

8) 원본이나 원본 이미지와 비교하지 못하였으며, 1981년 대조각에서 출간한 영인본 『小學諺解』으로 대



이기문(1972:105)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앙 관청에서 편찬되고, 다수의 편찬자가 관여된, 그리고 중앙어 중에서도 상류 계층의 언어가 반영되며, 대부분 언해 과정을 거친 것’인 『소학 언해』의 구개음화 용례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조선 시대 한글 편지에서 중부 지방에 구개음화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순천 김씨묘 출토 언간>의 발신자 중의 하나인 ‘순천김씨’의 아버지 김흠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16세기 언어를 반영한 것이 분명하다면, 김흠의 편지에 반영된 구개음화와 과도 교정의 용례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간본 자료의 성과물을 빈 곳에 채우고자 한다. 송광사에서 간행된 문헌 중에서 《계초심학 인문》(1577)에서는 구개음화와 과도 교정이 각각 17.33%(26/150)와 3.05%(4/131), 《발심 수행장》(1577)에서는 2.48%(3/121)과 1.23%(1/81), 《야운자경서》(1577)에서는 4.76%(13/273)과 1.48%(4/270), 《몽산화상법어약록》(1577)에서는 9.54%(39/409)와 5.36%(26/485), 《(사)법어》(1577)에서는 20.00%(31/155)와 12.20%(20/164) 등으로 실현된다(윤진영 2020:9-15).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에서 신천강씨의 편지에 구개음화와 과도 교정이 각각 0.8%씩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사)법어》(1577)를 제외하면 그 비중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순천 송광사에서 간행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1563)의 0.67%(1/148)와 0.00%(0/104)나 순창 취암사에서 간행된 《몽산화상육도보설》(1567)의 1.88%(7/372)와 2.16%(8/369)을 보면 전라도나 경상도에 구개음화 발생한 시기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의 방언 구획에서 중부 지역에 포함된 충청도 관련 언간에서는 구개음화가 17세기 후기부터 확인된다. 17세기 중기에 작성된 한글 편지에서는 구개음화와 과도 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송준길가 언간> 중에서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작성한 편지는 총 4건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부 지방에서 시작되어 중부 지방 쪽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충청도를 지나야 할 것이지만, 충청도의 한글 편지에서는 이러한 전파 과정을 보이지 않는다. 조선 시대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구개음화를 분석하고 간본 자료로 나머지를 채우는 과정을 거치니, 되려, 남부 지방의 구개음화 발생 시기와 중부 지방의 발생 시기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 5. 결론

---

비하였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강희숙(2010), 「나주임씨인간의 구개음화 과도교정 현상 연구」, 『한글』 289, 한글학회, 1-28.
- 곽충구(2001), 「국어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37-268.
- 김일근(1986), 『增訂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주원(1997),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 29, 국어학회, 33-49.
- 김주필(1993), 「晋州河氏 墓 出土 한글 筆寫 資料의 表記와 音韻現象」, 『진단학보』 75, 진단학회, 129-148.
- 김주필(1994), 「17·1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2015), 태학사).
- 김주필(2011ㄱ), 「송준길 가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양상과 특징」, 『국어학』 61, 국어학회, 61-92.
- 김주필(2011ㄴ), 『음운변화와 국어사 자료 연구』, 역락.
- 김주필(2013),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현상의 통시적 변화와 특성」,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95-137.
- 박부자(2017),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全州 李氏 李衡祥家 諺簡에 대한 서지적 고찰」, 『국어사연구』 25, 국어사학회, 97-132.
- 배영환(2012), 「현존 最古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211-239.
- 배영환(2014), 「『신창맹씨묘출토언간』과 관련된 몇 가지 국어학적 문제」, 『언어학연구』 32, 한국중원언어학회, 143-166.
- 배영환(2017), 「음운 변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양상 고찰 -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학』 100, 한국언어문학회, 35-66.
- 배영환(2020), 「17세기 충북 방언의 구개음화 연구 - 우암의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60, 동아시아고대학회, 121-146.
- 배영환(2021), 『조선시대 인간을 통해 본 왕실 남성의 삶』, 역락.
- 배영환·신성철(2018), 「<정조의 한글편지>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주어문』 39, 영주어문학회, 33-59.
- 배영환·신성철·이래호(2013),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藏書閣』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22-254.
- 백두현(2000), 「『현풍 곽씨 언간』의 音韻史의 연구」, 『국어사자료연구』 창간호, 국어사자료학회, 97-130.
- 백두현(2003),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 송민(1986), 『前期近代國語 音韻論 研究 - 특히 口蓋音化와 ㅁ音을 中心으로 -』, 탑출판사.
- 신성철(201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음운론적 특징」,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5-35.
- 신성철(2020), 「조선 전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ㄹ’ 두음법칙과 ‘ㄹ’ 비음화의 통시적 고찰」, 『語文論集』 81, 중앙어문학회, 43-74.
- 신성철(2021), 『조선시대 인간을 통해 본 사대부가 여성의 삶』, 역락.
- 안병희(1957), 「중간 두시언해에 나타난 ㄷ구개음화에 대하여」, 『일석 이회승 선생 송수기념논총』, 일조각(『국어사 자료 연구』(1992), 문학과 지성사 재수록).
- 안병희(1978), 「村家救急方의 鄉名에 대하여」, 『언어학』 3, 한국언어학회, 191-199.
- 윤진영(2020), 「16-17세기 전라 간행 문헌의 구결문에 반영된 구개음화 연구」, 『배달말』 66, 배달말학회, 1-29.
- 윤진영(근간), 「15-17세기 구개음화의 통시적 확산과 언어 접촉, 박사학위논문초고」
- 윤진영·신성철(2021), 「16-17세기 경상지역어를 반영한 한글 필사문헌의 구개음화 연구」, 『영주어문』 47, 영주어문학회, 145-173.
- 이기문(1972ㄱ), 『국어사개설(개정판)』, 민중서관.
- 이기문(1972ㄴ), 『국어음운사연구』, 한국문화연구소.
- 이남희(2021), 『조선시대 인간을 통해 본 왕실 여성의 삶과 생활세계』, 역락.
- 이래호(2015),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65-126.
- 이래호(201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문법적 특징」,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37-64.
- 이래호(2019), 「<송규립가 언간>에 나타나는 남녀 간 언어 차이」, 『語文論集』 79, 중앙어문학회, 7-37.
- 이래호(2021), 『조선시대 인간을 통해 본 사대부가 남성의 삶』, 역락.
- 장교은·김영(2019), 「16세기 후반 한글자료인 『청풍김씨묘출토언간(이덕열언간)』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29, 국어사학회, 125-156.

-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1998.
- 진가희·이래호(2022), 「<진주유씨가 묘 출토 인간>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어문연구』 50-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9-125.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태학사
- 홍운표(1985), 「구개음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43-157.
- 홍운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 황문환(2010),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73-131.
- 황문환(2015), 『조선시대의 한글편지, 인간(諺簡)』, 도서출판 역락.
- 황문환·김주필·배영환·신성철·이래호·조정아·조항범(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6, 역락.
-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유음(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3, 역락.

## The Palatalization and Local Culture in Hangul letters of Joseon Dynasty